

사노피, 세계 예방접종주간 맞아 'DTaP 혼합백신 10 년사' 인포그래픽 제작, 사내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 * 영아 기초예방접종 DTaP 혼합백신 도입 10 년사 인포그래픽 제작, 임직원 대상 배포
- * 사노피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 'AcXim(악심)'의 국내 영아 예방접종 기여 및 혼합백신의 가치 전달

대한민국 서울, 2022년 4월 21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 2022.4.24~4.30)을 맞아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DTaP 혼합백신에 대한 사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노피의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기초예방접종률, 혼합백신의 개발 및 국내 사용 현황, 혼합백신의 가치 등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임직원에게 비대면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포그래픽은 지난 2012년 국내 필수예방접종사업에 4가 DTaP 혼합백신 '테트락심주'를 첫 도입한 이후, 5가 DTaP 혼합백신 '펜탁심주'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공공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사노피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알리고자 제작됐다. 인포그래픽에는 ▲ 데이터로 보는 국내 기초예방접종률 ▲ 국내 DTaP 혼합백신 도입 10년사 ▲ 국내 DTaP 혼합백신 10년 사용량 ▲ 영아 DTaP 혼합백신 접종 스케줄 및 접종 횟수 등의 정보를 담았다.

혼합백신은 하나의 백신으로 여러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접종횟수를 줄여주고 복잡한 기초예방접종 스케줄을 간소화하여 적기 접종률을 높여준다는 이점을 갖는다. 4가 DTaP 혼합백신은 4가지 질환(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IPV))을 하나의 백신으로 예방하며, 단독 백신으로 접종 시 최대 6회에 이르는 접종 횟수를 단 3회로 줄인다. 또한 5가 DTaP 혼합백신은 5가지 질환(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IPV)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의해 발생하는 침습성 감염증을 예방하며, 단독 백신으로 접종 시 최대 9회에 이르는 접종 횟수를 단 3회로 줄인다. 지난 해 4월, 국내에 출시된 6가 DTaP 혼합백신은 5가 DTaP 혼합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질환에 'B형간염' 항원을 추가한 백신으로, 개별백신 접종 대비 접종횟수를 최대 8회 감소시킨다. 단, 6가 DTaP 혼합백신은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으로 사용 중이다.

사노피 'AcXim(악심) 패밀리'는 60여년의 소아용 혼합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노피의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로, 4가 DTaP 혼합백신 테트락심주, 5가 DTaP 혼합백신 펜탁심주, 6가 DTaP 혼합백신 핵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를 포함하고 있다. 테트락심주는 2012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된 후, 2, 4, 6개월 영아 기초예방접종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2017년 펜탁심주가 출시되면서 대부분의 기초예방접종에 펜탁심주가 사용되고 있다. 2020년 질병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의 94.3%가 5가 DTaP 혼합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락심주는 기초접종뿐만 아니라, 만 4세~6세

추가 접종에도 사용 가능하며, 국내 4 가 DTaP 혼합백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이다.(2021 년 4Q 기준) 6 가 DTaP 혼합백신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는 2, 4, 6 개월 영아 대상 유료로 사용 중이다.

시락 바트(Bhatt, Chirag) 백신사업부 마케팅 이사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영아 예방접종은 기초 면역을 형성하고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첫 발걸음인 만큼 그 어떤 예방접종보다 중요하다”며, “사노피는 지난 10 년 간 혁신적인 DTaP 영아 혼합백신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현재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인 ‘AcXim(악심) 패밀리’를 구축, 원활하게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 4 가 혼합백신 테트라심주, 5 가 혼합백신 펜탁심주에 이어 6 가 혼합백신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를 통해 아이들이 감염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노피는 10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으로서 매년 10 억 도즈 이상, 5 억 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7 여 가지의 감염성 질환(콜레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A 형 간염, B 형 간염,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는 폭넓은 백신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60 년 이상 소아용 혼합백신 개발 역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혼합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영아의 기초 면역 형성 및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있다. 사노피는 지난 30 여 년 간 국내 제약사 및 주요단체, 보건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며, 국내 주요 백신 공급원으로 한국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